

세계 석유시장 3조달러 투자 필요

IEA, 2030년까지 산유량 650만배럴로 증가 ... 원유 탐사 및 개발 중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30년까지 세계 석유 시장에 3조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우존스 보도에 따르면, IEA는 11월5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세계 정유 시장에 한해 1030억달러의 투자수요가 있을 것이며 투자는 석유의 국제수요 증가에 따라 완만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IEA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투자비용이 1140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며 원유 매장량이 고갈돼가는 상황에서 완만한 오름세는 수요충족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1년부터 2030년까지 원유 탐사와 개발에 전체 투자의 70%가 쓰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IEA는 국제 석유시장의 투자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2002년에는 1일 7700만배럴이었던 세계 평균 산유량이 2030년께 1억2000만배럴까지 증대돼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앞으로 예상되는 급격한 수요증대에 대처키 위해 IEA는 2002년 1일 290만배럴이었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역내 산유량이 2030년에는 1일 650만배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EA는 “OPEC의 역내 산유량이 앞으로 20-30년 동안 급격하게 증대될 것이며 비OPEC 국가들의 산유량은 2030년께 1일 420만배럴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Chemical Journal 2003/11/06>